[슬픔의 철학-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김진영 선생님 1강 강의록]

완고한 등

참고 서적: 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원과 구

백지 위에서 곡선의 끝과 끝이 만나서 맞물리면 원이라고 한다. 지극히 추상적인 정의다. 그러나 수많은 지식들, 글자로 하는 문학부터 숫자로 하는 수학까지 모든 것이 추상적인 것의 끝과 끝이 맞물려 이루어진다. 어떤 한 지식인을 조명할 때, 그 지식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그가 '공인'-그것도 존경받을 만한-이라는 것과 동시에 협잡이나 스캔들 같은 사적인 흠집들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흠, 가령 그가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았다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건 그의 존경할 만한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공적인 것', 아주 추상적이고 멀어 보이는 '진리개념' 같은 것들만이 남게 된다. 진짜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내놓은 '탐구'에 스스로의 목이 잘리는 기요틴과 같은 운명을 맞는다.

'공부가 밥 먹여 주나'라는 말마따나 추상적인 학문들은 지금 당장 닥친 현실 앞에서 무력해 보이기만 한다. 쌓인 학자금 대출 빚은 어쩔 것이며 지금 당장 천오백원이 없어 사먹지 못하는 컵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문제들만큼 급박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건 없기에 우리는 쉽게 추상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젊은 세대는 꿈을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처럼 당혹스럽고 서글픈 말들을.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말들을.

바르트는 이러한 추상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신 자신의 사적 영역을 직시한다. 그의 사유들은 그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목을 잘리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체한 과거의 유년 시절에 대해 '부드러운 중심'이었다고 말한다. 중심을 무조건 '아버지'만이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그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어머니'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물론 그도 지적 중심 궤도에 다가가려는 욕구가 있다. 허나 그 지적 중심 궤도는, 아도르노가 지적하듯 자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원과 달리 구는 구체적이고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이다. 모난 데가 없고, 잘 굴러다닌다. 종이 위에서 굳어 있는 원이 아닌 구에서, 바르트는 자신의 '사랑의 주체'를 발전시켰

고 이는 '어머니'의 상실로 인해 또다른 '애도의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시작과 끝

바르트는 경계에 예민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어떤 경계든 일단 자신이 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바르트는 경계에 예민했다. 허나 그가 경계에 예민했던 건 타인들처럼 넘지 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 허위적인 굴레를 인식하고 이 허위를 폭로하고자 했다. 그가 '지적 테러리스트'였을 때, 그는 그 허구들을 지적했다. 그의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성애가 합리적이라는 말은 대체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라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가치들은 다 퇴색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해서 뭔가를 생산해 낸다. 이는 그 자신 또한 그 '만고불변'이라는 말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넘고' '지워야' 한다는 걸 아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계를 폭로해도 인간은 이 경계에 계속해서 속았다. 바르트는 인간들을 속이는 그 '코드 시스템'에 매혹된다. 매혹과 혐오는 양날의 칼이듯, 바르트는 계속 해서 허상적 시스템에 매혹되면서도 혐오를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시스템이 '애도'의 끝을 요구했을 때도, 바르트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카메라 루시다'에서는 마술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도 일기'에서는 그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피엔딩은커녕 끝나지 않는, 끝없는 '하강 운동'만이 일어났을 뿐이다.

프로이트는 '애도'가 병적인 '집착'이 되는 건, '없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신의 슬픔에 도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없다'라는 건 언제부터, 누가 정하는 것일까. 죽음에 대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없는 것일까. 그 사람의 시체가 눈 앞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탄생은 어떠한가. 예전에 한 여자가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몰래 유산시키려다 경찰에게 단속된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3개월이 채 안 되었다는 걸 알고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3개월이 넘었다면 아기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며 여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과연 아기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탄생의 순간을 규정하는 건 '법'이다.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이 인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고 이를 강요한다. 도구에 의해 '법'을 따르는 인간으로 '도구화'된 것이다.